

“여름방학 동안 인터넷·스마트폰 없이 지내봐요~”

✎ 김구동 기자 | ☎ 승인 2022.08.07 19:19

|(재)도청소년육성재단,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스스로 캠프’ 운영



[경안일보=김구동기자] (재)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르고,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2022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스스로 캠프’를 운영한다.

금번 치유캠프는 여자 중·고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경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캠프는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상담전문가의 면담 및 임상심리사의 전문적 심리검사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상담, 집단상담,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수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및 수련 활동을 통해 통합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학생 멘토와 함께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인터넷·스마트폰에 빠져 친구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갈등으로 인해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및 인터넷·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쓰고 청소년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고위험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해 본 캠프 운영을 돕고 있다.

또한 캠프 참가 청소년들의 간식비 250만 원을 지원해 도내 취약 계층이 참가비 부담 없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캠프 수료 후에도 참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청소년 동반자)과 연계해 3개월간 지속적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김치영 대표이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김구동 기자 ga7799@naver.com